다음 한 걸음을 위해

For the Next Step

목차

다음 한 걸음을 위해 3

스파이크 아일랜드 / 브리스틀 4
— 예술 생태계 만들기

캐슬필드 갤러리 / 맨체스터 12
— 작가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 던디 20
— 소도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일

로커스 플러스 / 뉴캐슬 27
— 전시장 없이 작품을 제작하다

화이트채플 갤러리 / 런던 34
— 더 넓게, 더 깊이

크레딧 40

주한영국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한·영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큐레이터들이 한국과 영국을 방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2012년에는 한국 큐레이터 6명이 약 2주간 영국을 방문해 영국 내 미술기관 및 작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방문은 양국내 기관이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전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문 내용은 각 큐레이터가 쓴 참관기와 큐레이터들의 대화를 기록한 자료집으로 제작해 공개[1]하였습니다.

2014년 한·영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국 큐레이터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기관을 방문하고 한국 작가들을 만났으며, 이는 양국 미술계의 장기적 협력과 교류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한국 방문 기간 중 진행한 ‹영국 큐레이터 초청 아트토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큐레이터들과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2014년 10월 29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이루어진 발표를 바탕으로 해 각 기관이 한국 미술계에 던질 수 있는 주제들을 정하였고, 서울과 영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소개하는 다섯 개 기관(스파이크 아일랜드, 캐슬필드 갤러리,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로커스 플러스, 화이트 채플 갤러리)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미술계에서 일하는 작가, 큐레이터, 기관들이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각 기관은 유구한 풀뿌리 시민운동의 전통, 수백 년에 달하는 미술 기관의 역사,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등 한국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2008년을 전후로 벌어진 금융위기와 긴축재정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미술 기관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긴 시간의 노력과 시도,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진 이들 큐레이터와 기관의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돌아보는 것은 변화의 기로에 놓인 국내 상황을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자료집이 작가, 큐레이터와 여러 미술 기관 종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한영국문화원 아트팀

[1] 2012 한·영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 자료집 (PDF) http://www.britishcouncil.kr/sites/britishcouncil.kr/files/uk-_korea_curator_exchange_programme.pdf

스파이크 아일랜드
Spike Island
/ 브리스틀

예술 생태계 만들기

스파이크 아일랜드

www.spikeisland.org.uk

133 Cumberland Road

Bristol BS1 6UX

전시 운영시간

화–일 정오–오후 5시

설립 및 개관

1998년

주요 시설

- 전시장 및 강연, 상영 시설
- 카페
- 작가 스튜디오 (70개)
- 지역 내 동시대 예술 기관을 위한 작업실, 사무실
- 그래픽 디자인, 영화 등 문화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 공간
- 스파이크 디자인: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협업 공간[1]
- '어소시에이츠Spike Associates' 회원을 위한 공유 공간
- 웨스트잉글랜드 대학교West England University 미술대학 학부과정 학생 및 교직원 공간

주요 프로그램

- 전시 및 부대행사
- 프로덕션 레지던시
- 졸업생 펠로십
- 스파이크 필름 & 비디오



1

Co-working Space: 최근 국내에서도 디자이너, IT계열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협업 사무공간.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페이스 류', 그리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세운 디캠프에 자리한 협업 공간등이 있다.

참여 큐레이터: 헬렌 렉(Helen Legg, 스파이크 아일랜드 디렉터)

2010년부터 브리스틀의 스파이크 아일랜드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버밍엄의 이콘 갤러리[2]에서 5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전시 기획과 오프-사이트(갤러리 외부의 다양한 공간) 프로젝트를 비롯, 버밍엄의 공업 지대인 딕베스에 위치한 공장 건물에 이콘 갤러리 이스트사이드를 개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스파이크 아일랜드에서는 하룬 미르자, 베키 비즐리, 로르 푸르보, 디와르와 직켈, 시아라 필립스와 코리타 켄트, 이반 실, 제시카 워보이스, 제브뎃 에렉 등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2014년에는 터너상[3] 심사 위원을 맡았고, 2013년에는 폴 햄린 작가상[4] 수상위원으로 일했다. 현재 비주얼 아츠 사우스 웨스트[5] 의장을 맡고 있으며, 브리스틀 문화개발 파트너십Bristol Cultural Development Partnership 자문위원회, "Frac Midi-Pyrénées 2012-2015"[6] 작품 수집 위원회에서도 자리를 맡고 있다.

2
Ikon Gallery
http://ikon-gallery.org/

3
Turner Prize
http://www.tate.org.uk/visit/tate-britain/turner-prize

4
Paul Hamlyn Foundation Awards for Artists
http://www.phf.org.uk/Artists/

5
Visual Arts South West
http://www.vasw.org.uk/

6
Les 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 (Frac)
http://www.frac-platform.com/
http://www.frac-platform.com/fr/les-frac/frac-midi-pyrenees-les-abattoirs

작가들이 주도해 만들어진 기관

수입이 많지 않은 작가들이 더 저렴하게 작업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전신인 브리스틀 아트스페이스Bristol Artspace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들이 직접 세운 단체였다. 작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실을 제공하는 런던의 스페이스 스튜디오[7]를 모델로 삼았고, 1976년에는 1년이 넘게 버려져 있던 브리스틀 항구의 한 창고를 임대했다. 작가 여러 명이 공간과 장비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고, 1996년에는 차(茶)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구매했다. 이 공간을 바탕으로, 1998년에는 스파이크 아일랜드가 설립되었다. 기부의 형식으로 시의회에서 건물을 인수했고, 2007년에는 영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50만 파운드(약 40억 원)를 지원해 전시 공간을 대폭 확장했다.

작가 중심의 생태계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작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시를 진행하는 미술 기관으로 확장되어 운영 중이지만,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작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전시와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되는 일반적 미술기관이 아니다. 넓은 면적의 전시 공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작가들을 위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다른 예술 공간을 비롯,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협업 공간, 사무실 임대, 회원제로 운영하는 24시간 개방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한다. 규모적인 면에서도 글쓰기에 적합한 공간에서부터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에 이를 만큼 크기가 다양하다.

작가들을 위한 저렴한 공용 작업실에서 시작해 미술 기관으로 자리잡은 지금, 스파이크 아일랜드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예술가를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문화 시설과 자원이 수도인 런던에 편중된 상황에서, 브리스틀이라는 지방 도시에서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저렴한 작업실에 입주하는 것은 단순히 작업을 위한 공간을

7
SPACE STUDIOS
www.spacestudios.org.uk/
1968년 설립. 2014년 기준으로 런던 내 7개 구에 18개의 작가 스튜디오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700명의 작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실을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띤다.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작가들이 창작하는데 필요한 연구, 조사, 대화를 이어나가고 네트워크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부 경제'가 작동하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작업실에 입주한 작가를 비롯, 사무 공간을 사용 중인 다양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이 서로 일을 맡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스파이크 아일랜드가 작업실 입주 작가에게 설치 작업 등을 의뢰할 수도 있고, 입주 작가들 간에 서로 재능을 교환할 수 있다.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는 회사의 경우 작가들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제작사 등을 유치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를 입주 작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작업의 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입주한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입주 작가들이 이끄는 아트북페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파이크 프린트 스튜디오. Photograph by Stuart Whipps.


스튜디오 입주 작가들. Photograph by Stuart Whipps.

스파이크 어소시에이츠

스파이크 어소시에이츠Spike Associates는 입주 작가, 업체 등의 교류를 넘어 보다 넓은 차원에서 '동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회원제 프로그램이다. 현재 12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모임/작업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 컴퓨터 이용, 미팅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책 읽기 모임, 예술 프로젝트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진행에 소액의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간단한 심사를 거쳐 제공하기도 한다.


스파이크 어소시에이츠를 위한 공간.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Image by Yiannis Katsaris.

교육기관과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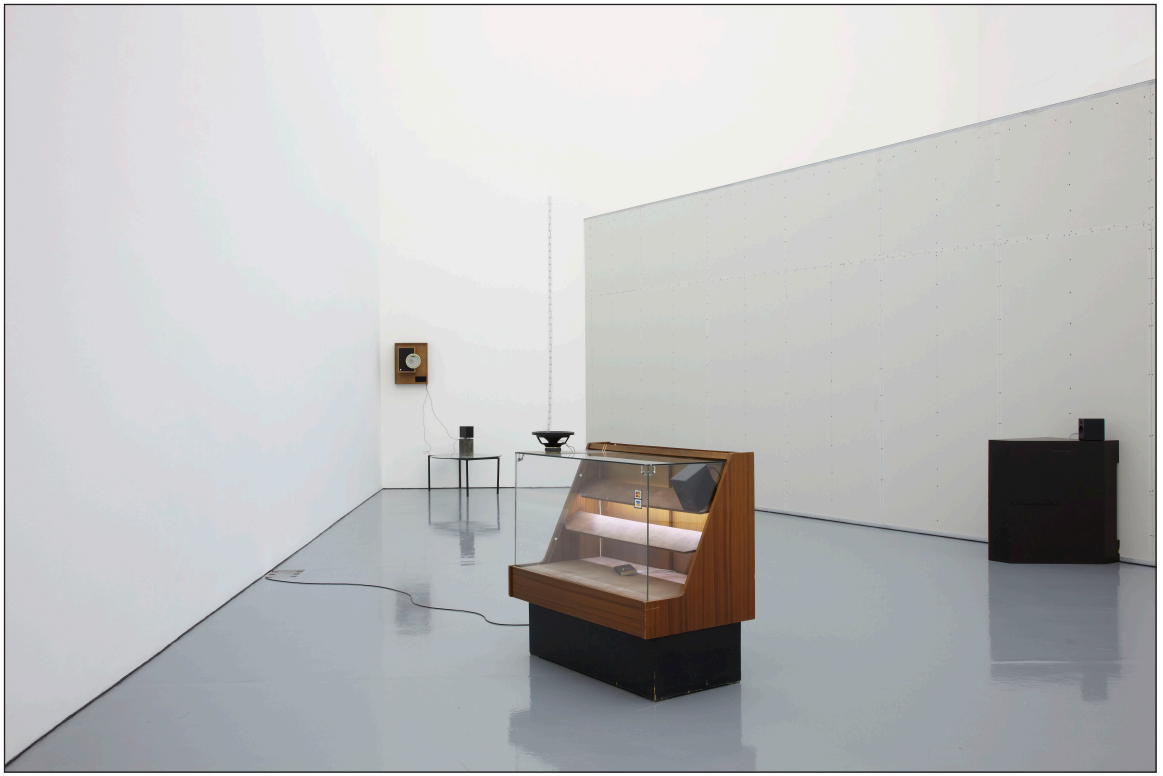
이미 활동 중인 작가 못지않게 앞으로 작가로 활동할 학생들 또한 '동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웨스트잉글랜드 대학교를 스파이크 아일랜드 내 입주 기관으로 유치하였다. 대학교 측에서 임대한 공간은 미술대학 학생들의 작업실, 큐레토리얼 과정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실 등으로 활용 중이며, 학생들이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학사 과정 졸업생 중 두 명을 선정해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작업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다른 학교인 플리머스 대학교 졸업생 또한 무료 작업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미술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겪는 어려움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작가 지망생들의 경우 학부 졸업과 함께 모든 제도적 지원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작업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술기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기에는 경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미술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단계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만 작업을 지속할 경우 머지않아 작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Haroon Mirza, ‹Untitled Song Featuring Untitled Works by James Clarkson›, installation view. Image courtesy of Jonas Isfält/Bonniers Konsthall.



하룬미르자 개인전 /|/|/|/|/|/|/|/|/|/|/|/|/|/|/|/|/|/|/| (2012) 설치전경.
‹Untitled Song featuring Untitled Works by James Clarkson› (detail). Courtesy Spike Island and the artist. Image by Stuart Whipps.

/|/|/|/|/|/|/|/|/|/|/|/|/|/|/|/|/|/|/|
2012년 1월 21일–3월 25일

하룬미르자 개인전은 조명과 음향을 재료로 작업을 펼쳐온 작가가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개인전이었다.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런던 Camden Arts Centre, 미들스보로의 mima(middlesborough institute of modersn art), 스웨덴 스톡홀름의 Bonniers Konsthall과 협력하여 전시를 주최했다. 협력 기관에서는 작가의 작품 일부를 선보이거나 스파이크 아일랜드 전시와 같은 개인전을 진행했다.

작가의 성장에 주목하다

전시프로그램 또한 작가의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전의 경우, 단체전에 참여했거나 소규모 개인전을 치른 작가들이 대규모 개인전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전시 공간은 8,000평방피트(약 740제곱미터) 규모로, 2-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이정도 규모의 공간을 자신의 작업으로 채우는 전시 경험은 작가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간에 걸맞은 규모를 지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전시 구성에서는 협업을 중시한다. 이는 작가들의 연합에서 출발한 기관의 성격과 부합하며, 작가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볼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협업은 작가와 작가, 기관 스태프와 작가, 관객 사이의 직접적 협업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와 동시대 작가가 함께 전시를 여는 새로운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작과 지원, 수익 창출

2013년,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스파이크 필름 & 비디오Spike Film & Video를 시작했다. 스파이크 필름 & 비디오는 일종의 제작 지원 서비스로, 영상장비 대여와 제작 지원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인 픽쳐 디스Picture This와 스파이크 아일랜드가 합병되면서 이루어졌다. 스파이크 필름 & 비디오의 고객은 작가, 미술기관, 갤러리 등 상업과 비상업 영역을 포괄하며, 기관 내 입주작가들에 대한 지원, 스파이크 아일랜드 자체 제작 작품에도 관여하고 있다.

스파이크 아일랜드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작품을 반드시 스파이크 아일랜드에서 처음 선보일 필요는 없다. 프로듀서와 테크니션이 작가를 도와 영상/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콘셉트에서 촬영 계획, 후반 제작, 편집, 전시 및 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긴밀하게 논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작이 끝난 작품의 전시 및 상영은 다른 기관에서 먼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스파이크 필름 & 비디오는 제작 서비스 외에도 작업실에 입주한 작가 외의 "세입자"들을 통해 기관 운영을 위한 수익을 창출한다. 일반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는 1평방피트에 5파운드(1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Corita Kent and Ciara Phillips ‹Pull Everything Out› (2012) installation view.

2012.6.30-8.26

코리타 켄트(1918-1986)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한 작가로, 벅민스터풀러, 찰스 앤 레이 임스, 알프레드 히치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시는 작고한 코리타 켄트와 동시대 작가인 키아라 필립스의 2인전으로, 키아라 필립스가 코리타 켄트의 작업에 여러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객은 물론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스태프, 키아라 필립스까지 참여자로 삼은 워크숍에서는 수녀이자 반전 운동가, 여성주의자이기도 했던 코리타 켄트의 활동과 작업 제작 방식을 함께 배워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8만 원)로,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창출한 수익은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쓰이며, 궁극적으로는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작가들의 모임에서 작가를 위한 미술 기관으로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이 집중된 수도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브리스틀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 노력했던 1970년대 말 작가들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역사와 경험, 자본이 쌓이고 정부 기관의 지원이 더해져 오늘의 스파이크 아일랜드가 탄생했다. 스파이크 아일랜드는 작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초창기의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작가를 위한 미술 기관으로 남고자 노력한다.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작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로서의 전시, 수익 창출과 작가 지원 수단으로 작용한 제작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본 원칙을 지키되 실현 수단은 유연하게 취한다. 더 나아가, 지역 기반의 미술 기관으로써 작가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행사나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 스스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Bring Your Own Beamer, 2012년 10월 26일.

Bring Your Own Beamer
http://www.byobworldwide.com/

지역 주민, 창작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프로젝트. 행사가 진행되는 하룻밤 동안 참가자들이 각자 프로젝터를 들고 와 상영하고 싶은 작품, 영상물을 보여주었다.
http://www.spikeisland.org.uk/events/exhibitions/bring-your-own-beamer/

캐슬필드 갤러리
Castlefield Gallery
/ 맨체스터

작가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

작가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

캐슬필드 갤러리

캐슬필드 갤러리

www.castlefieldgallery.co.uk

133 Cumberland Road

Bristol BS1 6UX

2 Hewitt Street

Manchester, M15 4GB

전시 운영시간

수–일 오후 1–6시

사무실 운영 시간

화–금 오전 10시–오후6시

설립 및 개관

1984년

주요 시설

전시장

주요 프로그램

전시 및 부대행사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

뉴 아트 스페이스



캐슬필드 갤러리. Image by Jack Hatton, 2014.

참여 큐레이터: 쿵 리(Kwong Lee, 캐슬필드 갤러리 디렉터)

영국 맨체스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 전문가이자 작가로, 2005년부터 캐슬필드 갤러리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디렉터로 부임하기 전에는 3년간 캐슬필드 갤러리의 공동 디렉터로 일했고, 갤러리 매니저로도 5년간 재직하며 캐슬필드 갤러리가 100만 파운드를 들여 새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1991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1993년부터 맨체스터 중국 예술 센터[1]에서 전시 담당관으로 일했으며, 작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영국 전역의 동시대 미술 단체 네트워크의 일부인 컨템포러리 비주얼 아츠[2] 맨체스터 지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3회 터닝 포인트 내셔널 서밋[3]에 패널로 참여하였다. 프리랜스 작업으로 영국 문화예술위원회[4]의 미술 분석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방문 강연자로 활동 중이다. 작가로서도 활동하며, 영국, 일본, 홍콩에서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1
Centre for Chinese Contemporary Art (CFCCA)
http://www.cfcca.org.uk

2
Contemporary Visual Arts Network
http://www.cvan.org.uk/

3
Contemporary Visual Arts Network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매년 시각 예술의 당면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4
Arts Council England
http://www.artscouncil.org.uk/

미술관은 어떻게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는가?

작지만 큰 기관을 향해

1984년 캐슬필드 갤러리의 설립을 이끈 것은 맨체스터 작가 작업실 조합[5] 소속 작가들이었다. 맨체스터 시에 젊은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작가들이 직접 캐슬필드 갤러리를 연 것이다. 2002년에는 시내 중심지로 장소를 옮겼고, 현재 디렉터를 포함해 총 6명의 스태프가 파트타임으로 근무[6]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새로운 공간으로 옮긴 캐슬필드 갤러리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신 크기가 줄어들었다. 전시 공간의 면적은 약 250제곱미터로, 일 년에 약 7개 가량의 전시를 연다. 그러나 전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역 작가들과 더불어 작지만 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맨체스터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한편, 영국 내 다른 지역과 국제 미술계의 흐름과 맨체스터의 미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작가 중심의 공간

작가들이 직접 세워 시작한 곳이니만큼, 캐슬필드 갤러리의 프로그램은 작가와 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프로그램 구성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미술, 시각예술이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고 다른 분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장르를 뛰어넘어 예술의 역할을 살펴볼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맨체스터를 런던, 글라스고, 베를린, 앤트워프처럼 작가들이 머물며 창작에 힘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작가를 길러내는만큼 관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작가들과 '함께' 일하는 기관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합적 작가 개발Integrated Artist Development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통합적 작가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한다.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작가의 작품과 프로젝트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크숍, 멘토링, 훈련 등을 통해 작가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5
Manchester Artist Studio Association (MASA)
http://www.masa-artists.com
1982년 맨체스터 기술대학(Manchester Polytechnic) 졸업생들이 설립한 단체로, 여러 명의 작가가 모여 공동 작업실은 운영했다.

6
주 5일 풀타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4명에 해당.



맨체스터의 리버풀 스트리트에 자리했던 옛 캐슬필드 갤러리


VISUAL ARTS

CASTLEFIELD GALLERY HITS 30

FOR a while there, as the Arts Council slashed cultural grants and several local galleries took the hit, Castlefield Gallery looked to have a very uncertain future.

And yet, newly revitalised, the gallery – behind Deansgate Station – is making its 30th birthday this month with an exhibition celebrating the way in which the fiercely contemporary space has supported the work of artists at all stages in their career – paving the way for many to go on to great critical acclaim and awards.

With that in mind, it would have seemed a little perverse to use this marker of three decades of visionary programming to cast an eye back on what the gallery has achieved during that time.

More in keeping, then, is 30 Years Of The Future, which ambitiously and positively casts an eye forwards via chats with prominent contemporary artists, curators and creative thinkers who nominate their artists to watch over the next 30 years.

One of the voices raised in support is Castlefield Gallery's patron Ryan Gander, who picks Timothy Foxon as his big name for 2015. "I first met Timmy 10 years ago teaching at Wimbledon, where he studied," he explains.

"His work was an extension of his personality and was instantly intriguing to me. It was both quick witted and intelligent, but also spastic with possibilities."

Foxon is based in Chester, and continues to make work that has a full-on fist fight with our preconceptions. "It speaks of housing estates, the exotic from a localised perspective," Gander continues.

"It smells of Lynx deodorant, it wears a suit in a room full of people wearing football shirts and reminds us that we only standout as an exception to the norm when we are, in fact, surrounded by norms."

Sue Webster, of Noble & Webster, raises her voice in support of London's Danny Fox and finds comparisons with Pablo Picasso in his paintings, while Emily Speed highlights Jay Delves' unusually sculptural performance and film work.

Manchester-based artist Mike Chavez-Dawson has also created commission 30/30 – publishing a limited print and curating a performance work based on questions posed to past and present gallery employees, being staged on December 4.

● **Castlefield Gallery, Hewitt Street / castlefieldgallery.co.uk / 0161 832 8034 / launches Dec 4, then open Dec 5-Feb 1, 2015 / open Wed-Sun 1pm-6pm / free / @CastlefieldGall**

● Timothy Foxon, The Talking Cave, 2014

캐슬필드 갤러리 개관 30주년 관련 기사. *Manchester Evening News*, 2014.

말하는 다양한 계기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작업을 실험해 볼 기회를 주거나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그렇다면 캐슬필드 갤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 작가 개발의 개념을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ReView / Art & Society / Head to Head / Self-M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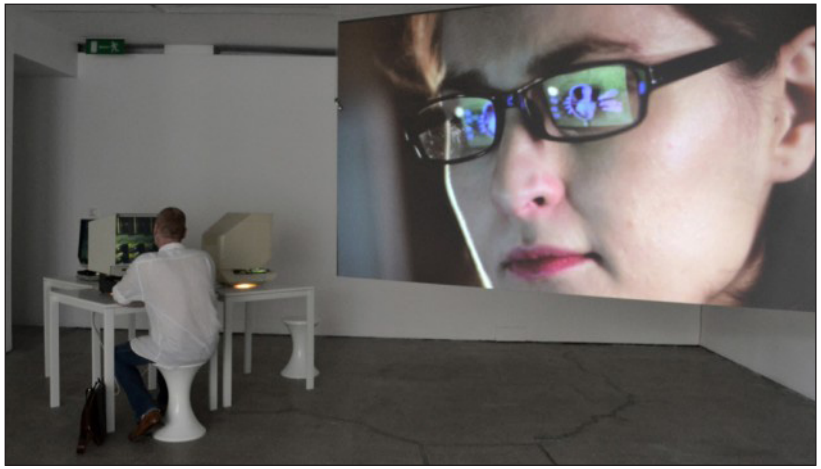
캐슬필드 갤러리의 기획 전시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분류는 명확한 방향성을 띤다.

ReView는 경력의 중간 지점에 있거나 이미 명성을 쌓은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보통 6–8주 가량의 길이로 진행하며, 동시대 미술의 작업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한편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와 작업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어린 세대에 속하는 작가와 관객에게 자극과 영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Art & Society는 큐레이터가 기획하는 작가나 미술계 밖의 전문가가 캐슬필드 갤러리와 함께 기획하는 전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참여적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거나 협업의 요소가 강한 프로젝트를 하는 이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시를 선보이는 동시에 예술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지역 사회와도 함께 일하게 된다.

Head to Head는 기존에 함께 작업을 펼친 적 없었던 두 작가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전시이다. 열린 형식을 취하는 기획으로, 초대된 작가들이 반드시 함께 작업을 진행하거나 단체전의 형식을 띨 필요는 없다. 심지어 여러 개의 개인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볼 때, 작업이나 전시를 함께 한 적은 없지만 연결 지점이 있는 작가들이 서로 만나 유무형의 교류를 하고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가중 한 명은 맨체스터 지역이나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로, 나머지 한 명은 국내외에서 경력을 쌓고 인정받은 작가를 선정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다.

Self-made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술계에 소속되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의 작업을 위주로 소개하는 전시이다. 독학을 통해 작가가 되었거나 미술 외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함께 전시를 만들며, 이를 통해 관객층을 넓히는 동시에



Dave Griffiths, ‹Babel Fiche›, 2012. Image: Dave Griffiths, 2012.



Oscar Nemon, ‹Studies for a Bust of Margaret Thatcher›, c. 1983.
필 앤드 갈리아 콜렉티브Pil and Galia Kollectiv가 기획한 *Radical Conservatism*[7] (2013) 출품작.

7
Radical Conservatism
2013년 11월 30일–2014년 2월 2일
http://www.castlefieldgallery.co.uk/event/radical-conservatism/

동시대 미술의 범위를 탐구한다. 가장 최근에는 밥 & 로버타 스미스가 기획을 맡아 *Snail Porridge*[8]를 기획했다. 감옥 수감자들이 그린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로, 쾨슬러 트러스트[9]와 캐슬필드 갤러리가 공동주최하였다.

Launch Pad

Launch Pad는 지역의 작가, 학생들이 갤러리 공간을 일종의 시험장으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짧은 기간동안 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맨체스터 미술대학 학부 및 석사 재학생과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 회원을 대상으로 기획안을 받아 공간을 내어주며, 최대 열흘 동안 전시, 행사, 발표회 등을 치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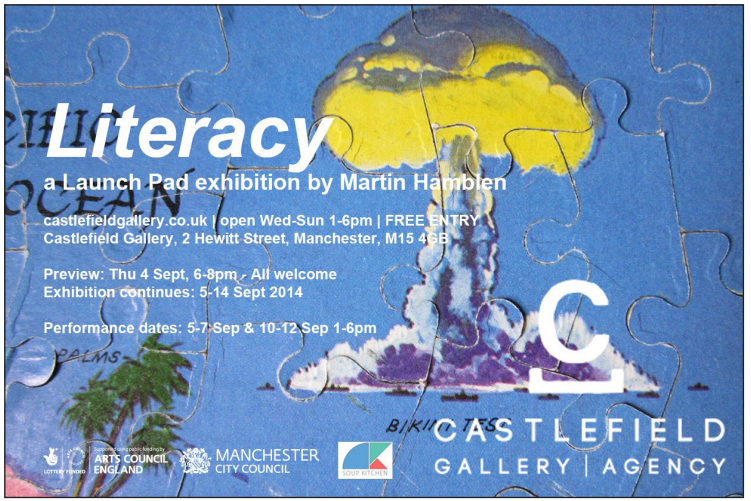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 Castlefield Associates

2012년 12월에 시작한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는 연회비 60파운드를 내는 회원제 프로그램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월 1–2회 강연,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초청 멘토링, 작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교육, 작업 발표 및 토론 세션, 맨체스터 외부로의 전시 및 행사 관람 투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회원에게는 Launch Pad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낼 자격이 주어지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뉴 아트 스페이스 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30년이 넘는 캐슬필드 갤러리의 역사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 프로그램은 짧은 역사를 지닌 듯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작가가 세운 공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교류 활동을 공식적인 형태로 전환하고 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즉각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서 캐슬필드 갤러리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통합적 작가 개발'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뉴 아트 스페이스

뉴 아트 스페이스는 맨체스터 시내와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공간을 다양한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에 가입해야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로, 캐슬필드 갤러리가



Launch Pad 포스터 사례


Launch Pad: Manchester School of Art 2013[10] 진행 기록사진. Image by John Lynch, 2013.

8
Snail Porridge: an exhibition of art by offenders
2014년 5월 9일–2014년 6월 15일

9
Koestler Trust
http://www.koestlertrust.org.uk/
쾨슬러 트러스트는 영국내 감옥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미술 및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감자들의 적응과 재활,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이다.

10
Launch Pad: Manchester School of Art 2013
2013년 11월 1일–11월 10일
http://www.castlefieldgallery.co.uk/event/launch-pad-manchester-school-of-art-2013/

불경기나 기타 사정으로 비어있는 건물의 사용권[11]을 후원받아 관리한다.

뉴 아트 스페이스 프로그램 또한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와 같은 해인 2012년에 시작되었고, 기존에 이루어지던 활동을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전환한 프로그램이다. 캐슬필드 갤러리는 이미 고정된 전시 공간 외에도 다양한 외부 공간을 작가들을 위해 사용해왔다. 팝업 스토어[12]와 비슷한 개념으로 작가들의 작업을 외부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보여주거나, 잠시 사용자가 없는 상업 공간 등을 저렴한 비용이나 무상으로 임대하여 작가들에게 제공해온 것이다.

뉴 아트 스페이스 참여자들은 다양한 곳에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행사나 전시를 치르지 않고 작업실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관객을 위한 공개 행사를 열 수도 있다. 뉴 아트 스페이스 공간에서는 매주 1-2회 가량 행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뉴 아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공간은 맨체스터 시내 중심지에 있는 페더레이션 하우스[13]이다. 긴 시간 방치되었던 이 건물은 총 8개 층에 80,000평방피트(약 7,400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대규모 작업을 제작하고 선보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2014년 2월부터 약 30여 팀의 작가와 단체가 입주해 활동 중이다.

보이지 않는 성과를 드러내기

캐슬필드 갤러리는 '통합적 작가개발'을 운영의 핵심으로 삼는다. 매년 7-8번의 전시와 프로젝트가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캐슬필드 어소시에이츠와 뉴 아트 스페이스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행사를 펼쳐내고, 여기서 시작된 것들을 다시 캐슬필드 갤러리의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순환되고, 쌓아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과 축적은 결코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작가가 작품과 개념, 비판적 사고를 전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을 전후로 시작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축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작가 개발을 중시하는 캐슬필드 갤러리의 활동은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 어려울 것임이 명확하다. 캐슬필드 갤러리 디렉터인 퀑 리는 지난 10-15년 동안의 '좋은 시절'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캐슬필드 갤러리 펀드레이징 자선 경매. 2012년 5월 30일. Image by Steve Iles.

2012년, 영국 정부는 예술단체 200여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하거나 취소했다. 캐슬필드 갤러리 역시 이들 중 한 곳으로, 재정 지원 감소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자선 경매를 마련했고, 터너상 수상작가인 마크 레키를 비롯해 데이비드 쉬리글리, 피터 사빌 등 60여 명의 예술가가 작품을 기증했다.

http://www.castlefieldgallery.co.uk/event/fundraising-auction-put-your-money-where-your-eyes-are/

http://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18031931

11
영국의 건물주들은 건물을 비워둔 채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캐슬필드 갤러리와 같은 예술단체에 공간을 후원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2
특정 상품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공간. 주로 신제품 홍보 등에 활용되는 개념이다.

13
http://www.castlefieldgallery.co.uk/art-spaces/new-art-spaces-city-centre/

하며, 즉각적 성과를 낼 수 없는 활동들이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점차 예술 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각 기관이 매칭펀드[14]의 비율을 늘리도록 권하는 중이다. 또한, 국가 지원이 줄어드는만큼 일반 후원자와 기업의 기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은 런던의 일부 기관 이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캐슬필드 갤러리와 같은 지방의 미술 기관은 한편으로는 당장의 생존을 해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장기적인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금 지원을 받는 미술관은 입장료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때문에 공공기금의 지원이 끊어질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무척 제한적이다.

캐슬필드 갤러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먼저, 단기적으로는 뉴 아트 스페이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과 재원을 확보하며 자원을 축적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작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공식적 활동들을 공식화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작가개발 활동의 유효성을 수치상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 활동에 관해 발언하기 위해 제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근거를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지원을 받는 기관이 외부 후원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추어 정부 기관에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DCA

/ 던디

소도시 미술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소도시 미술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www.dca.org.uk

152 Nethergate

Dundee

DD1 4DY

운영 시간

오전 10시–자정

박스 오피스 (매표소) 운영 시간

오전 10시–마지막 상영작 시작 15분 후

설립 연도

1999년

주요 시설

- 전시장
- 극장
- 판화 스튜디오
- 시각 연구 센터
- 카페, 바

주요 프로그램

- 전시 및 부대행사
- 영화 상영
- 워크숍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Photo by Chris Park.

참여 큐레이터: 그레이엄 돔케(Graham Domke,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 전시 큐레이터)

2007년부터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DCA)에서 전시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에딘버러 인버라이스 하우스Inverleith House에서 갤러리 매니저로 일했고, 에딘버러 아츠 페스티벌[1]에서는 토크 프로그램 담당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DCA에서는 30개 이상의 전시를 기획하며 80명이 넘는 작가와 함께 일했고,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만들었다. 던디 시에서 단순한 미술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의 기능에 따라 전시 외에도 다양한 외부 협력과 음악, 영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 중이다.

[1] Edinburgh Art Festival
http://www.edinburghartfestival.com/

소도시 미술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는 1999년 문을 열었다. 던디는 스코틀랜드 제4의 도시로, 인구는 약 15만에 불과하지만 지역의 교육과 고용의 중심지로 오랜 시간 자리잡아 왔다. 스코틀랜드의 주요 도시이지만 규모적으로는 소도시에 해당하는 던디에는 지역 작가들이 전시를 치를만한 공간이 부족했다. 전국적, 국제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 역시 부족했다. 또한, 지역 대학을 졸업한 작가들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 또한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술계 뿐 아니라 예술계 전반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청이 1980년 중후반을 기점으로[2]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지역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던 시게이트 갤러리Seagate Gallery와 던디 프린트메이커스 워크숍Dundee Printmakers Workshop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의 개관은 지역 정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아트센터의 개관을 위해 먼저 1995년에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에 던디 시의회, 던디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아트센터 설립 논의를 주도해온 시게이트 갤러리, 던디 프린트메이커스 워크숍에 관여한 작가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했다. 1995년 3월에는 시의회가 현재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가 위치한 곳에 있던 창고를 사들였다[3]. 던디 시의회는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아트센터를 개관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비전은 지역의 예술계 종사자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활동할 기반이 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 또한 포괄했다.

따라서,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는 지역 도시에 문을 연 미술관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는 개관 이전부터 설립 과정에 관여한 여러 지역 기관뿐 아니라 던디 시민들이 바라왔던 바이기도 하다. 오랜시간 던디에서 유일한 예술영화 상영관으로 운영 중이던 스텝스 시어터Steps Theatre를 보충하는 격으로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에 두 개의 스크린을 갖춘 상영관을 마련했고, 던디 프린트메이커스 워크숍 또한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건물 내에 둥지를 튼 비주얼

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http://www.variant.org.uk/7texts/Marshall_Anderson.html

3
긴 시간 방치되었던 창고 건물은 지역의 스케이트보드 동호인들이 스케이트보드장으로 활용 중이었다. 이들은 방치된 건물이 상업적 부동산 개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문화시설로 쓰이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애써 가꾼 공간과 스케이트보드 램프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1998년에 한 지역 교회가 다른 곳에 스케이트장을 짓도록 지원하면서 해결되었다.

DCA 내부 전경



리서치 센터Visual Research Centre[4]는 던디 대학교 내 조던스턴 칼리지 오브 아트 앤드 디자인Jordanstone College of Art & Design의 일부이다. 던디 컨템포러리 아츠는 미술관이자 극장이며, 연구소이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장소이고, 지역의 예술가에게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곳인 동시에 더 넓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예술 활동을 소개하는 곳이다.

DCA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대답[5]

1. 런던이라는 중심지 외부에 존재하는 지역 기관으로써 DCA의 역할과 정체성은 무엇이라 할 수 있나?

DCA는 던디 시와 주변 지역의 관객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예술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던디 시와 지역의 예술을 같은 차원에서 선보인다. 스코틀랜드는 작은 나라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작가를 많이 배출했고, 이런 현상은 스코틀랜드의 예술 생태계 덕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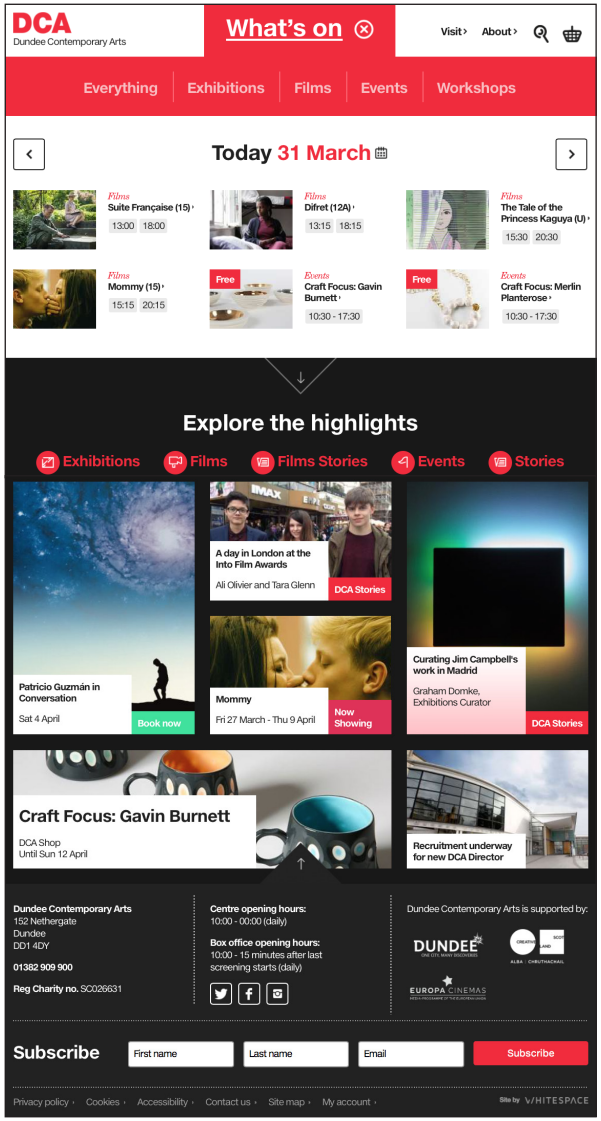
던디에는 훌륭한 대학교 두 곳과 예술학교 한 곳이 있어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배출된다. DCA와 같은 공간은 이들이 던디에 머무를 이유가 된다. DCA에서 작품을 전시할 기회뿐 아니라 일을 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테크니션, 교육담당자, 갤러리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2. DCA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기관의 활동을 전시, 영화, 행사, 워크숍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다양한 하위 분류로 나뉘어진다. 기관으로써 DCA의 활동을 이처럼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써 잠재적 관객을 고려한 분류인지 궁금하다.

던디 시의 중심에 자리잡은 복합 문화 기관인 DCA의 연간 방문자 수는 30만을 넘는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DCA를 찾기 때문에 전달할 정보도 많고 공유해야 할 내용도 많다. 주 전시장에서는 매년 5개의 전시를 진행하며, 공예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단순하게 구분하되 프로그램 사이에 혼동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 DCA를

4
Visual Research Centre
www.dundee.ac.uk/djcard/vrc

5
다음의 질문과 답변은 2014년 큐레이터 워크숍 이후 DCA 큐레이터 그레이엄 돔케와 편집자가 진행한 서면과 전화 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What's O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DCA 웹사이트. 기관의 활동 구분보다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방문객이 감상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영화, 행사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문하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도구에 불과하다 말할 수 있다. 주민, 관객, 참여자들과의 관계는 DCA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3. DCA는 던디의 "사회문화적 허브"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가?

DCA가 생기기 전후 던디 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겠다. 던디는 산업 생산 시설이 많이 빠져나간 소도시로, 도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다. DCA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여 미술전시와 영화 관람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한편 DCA 안에서 혹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DCA 내에 자리잡은 프린트 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만들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업체에서 만든 공예품을 사거나 여러 책과 잡지 등을 살 수도 있다. 이런 활동들은 고용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예술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영감을 얻고 예술과 친숙해지는데 기여한다. 2018년에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6] 던디 분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결국 1990년대 말 DCA가 개관하며 시작된 장기적 비전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소도시에 자리 잡은 예술 기관으로써 DCA가 특별히 기울이는 노력이 있나?

미술관 혹은 예술 기관에서 흔히 진행하는 전시나 행사 외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젊은 관객을 위해서는 국제적 영화 축제도 연다. 뿐만 아니라, 던디 시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규모의 기관, 단체와 함께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런 스페이스[7]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과 협력하기도 하며, 무용단, 공연장과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

DCA는 던디 시와 주변 지역, 국제적 맥락을 동등한 비중으로 보고 프로그램과 활동을 전개한다. 더 나아가, 이런 여러 활동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과감성을 보이고자 한다. 던디 시의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국외에서도 DCA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6
V & A Victoria and Albert Museum
www.vam.ac.uk

7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예술 공간

만 16–19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스커버리 필름 스쿨"



이곳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지난 16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다

인구 15만의 소도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DCA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명확하다. 열악한 지역의 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예술가들의 자발적 요구로 시작된 DCA 설립 과정이 보여주듯, DCA는 그 시작부터 철저히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DCA는 지역을 넘어선 국제적 활동을 동등하게 펼치는 한편,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한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위 도판 참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 직업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DCA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DCA는 지역의 유일한 미술 기관이자 예술 센터로 지역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소도시 미술 기관은 지역과 어떻게 호흡하는가?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단서는 DCA의 웹사이트 메뉴 중 하나를 차지하는 "Stories"에서 찾을 수 있을지모른다. 웹사이트의 가운데에 자리한 "What's On"이 DCA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면, "Stories"는 친숙한 '이야기'의 형태로 기관의 역사를 기록한다. 고정된 분류만으로 소개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는 DCA의 활동이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되며, 이는 기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덧붙여,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DCA에서 재직해온 그레이엄 돔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소도시 미술 기관으로써 DCA가 지역과 맺는 관계는 그 무엇보다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소통 가능한 형태로 선보이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다.

로커스 플러스
Locus+
/ 뉴캐슬

전시장 없이 작품을 제작하다

로커스 플러스

www.locusplus.org.uk

Northern Constitution Club, 7th Floor,

Commercial Union House, 39 Pilgrim Street,

Newcastle upon Tyne

NE1 6QE

설립 연도

1993년

사무실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운영시간 및 전시 장소는 없음



로커스 플러스가 1996년 진행한 스테판 겍(Stefan Gec)의 프로젝트 ‹Buoy›[1] 제작 관련 자료사진

1

‹Buoy›

http://www.locusplus.org.uk/

projects/461~Buoy

참여 큐레이터: 존 뷸리(Jon Bewley, 로커스 플러스 디렉터)

"베이스먼트 그룹"(1977~81)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사무실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친 영국 최초의 미술 조직인 "프로젝츠 UK"(1983~1992)을 공동 설립했다. 1988년, 90년, 92년 ‹EDGE› 행사를 공동 기획했고 (런던, 뉴캐슬 어폰 타인, 로테르담, 마드리드), 1993년에는 로커스 플러스를 설립했다. 영국 및 국외의 협력자들과 100회가 넘는 일시적, 영구적 공공 미술 행사를 진행했다. 작가들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제작을 지원했으며, 40권이 넘는 아티스트북과 모노그래프를 펴냈다. 여러 문화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맡아 진행한 바 있다.



2000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영국 워윅셔의 콤튼 버니 저택 외부에 설치한 안야 갈라치오의 ‹Repens›[2].
작품 진행기간 이후 잔디가 다시 자라도록 했다.

2

‹Repens›

http://www.locusplus.org.uk/information/history/basement-posters

베이스먼트 그룹, 프로젝츠 UK, 로커스 플러스[3]

베이스먼트 그룹 (1979~1983)

로커스 플러스의 역사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뉴캐슬의 지하실에서 운영되었던 베이스먼트 그룹The Basement Group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현재 로커스 플러스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존 퓰리를 포함한 6명이 설립한 베이스먼트 그룹은 일종의 아티스트-런-스페이스[4]로 운영되었다. 이곳은 전시장으로서보다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고, 공간 안팎에서 4년간 약 230여 차례의 행사를 치렀다.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베이스먼트 그룹 내부에서는 주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고, 시내의 주차장, 거리 등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도 공연, 전시가 진행했다. 베이스먼트 그룹은 더 나아가 작가들의 영상 작업을 제작하기도 했다.

프로젝츠 UK (1983~1992)

베이스먼트 그룹이 해체될 무렵, 창립 멤버 중 존 퓰리와 켄 질Ken Gill은 프로젝츠 UKProjects UK를 설립한다. 작가들의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했던 베이스먼트 그룹과 달리, 프로젝츠 UK는 전적으로 사무실에 바탕을 둔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전시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가들의 작업의 제작[5]에 방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통해, 프로젝츠 UK는 협업을 펼치는 작가와 제작하는 작업의 범위를 보다 자유롭게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히 제작할 수는 없었다.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의 프로젝트 ‹The Sailing Destroyer›(1990)의 경우, 수명이 다한 영국 해군 구축함을 돛단배로 바꿔 북해를 항해하려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설계도와 모형만 제작할 수 있었다.

로커스 플러스 (1993~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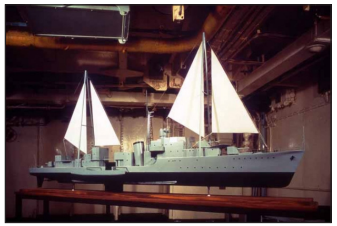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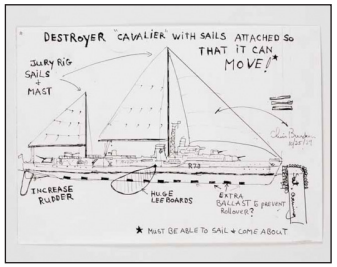
1993년, 로커스 플러스는 "시각예술 커미셔닝[6] 에이전시"로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베이스먼트 그룹에서 프로젝츠 UK로 이어져온 활동을 바탕으로, 로커스 플러스는 단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작품을 제작하는 기관으로 위치를 설정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고 협력을 펼치는 작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미술 기관의



뉴캐슬 어폰 타인의 벨스코트에 자리 잡았던 베이스먼트 그룹 입구 (1980년 경 촬영)



베이스먼트 그룹의 전시와 행사 안내 포스터들[7]

‹The Sailing Destroyer›[8](1990) 모형과 스케치.

3
다음 링크에서 1983년에서 2015년 초까지 세 기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3월 기준) http://www.locusplus.org.uk/assets/documents/CV_Feb2015.pdf

4
Artist run space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간을 일컫는 표현. 주로 기존의 미술관이나 상업 갤러리의 구조를 벗어난 형태의 소규모 기관의 형태를 띤다.

5
여기서 '제작Production'이라 함은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착상에서 실현, 소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을 일컫는다.

6
"커미션Commission"은 작품 제작 의뢰, 지원 등으로 풀어쓸 수 있다. 동시대 미술에서는 비엔날레 등 큰 규모의 행사나 전시와 함께 새 작품을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7
http://www.locusplus.org.uk/information/history/basement-posters

8
http://www.locusplus.org.uk/projects/623~The+Sailing+Destroyer

일반적 틀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들을 제작하고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더불어, 함께 작업하는 작가가 얼마나 유명한지와 상관없이 로커스 플러스와 함께 작업할 내용이 작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지에 주목한다.



Andrew Grassie, ‹The Locus+ Office›, 2001. Tempera on paper 14.2×19.7cm

전시장 없는 미술 기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진 프로젝츠 UK와 마찬가지로, 로커스 플러스는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존 뷸리를 포함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로커스 플러스는 그야말로 '전시장 없는' 미술 기관으로, 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업들은 언제나 제3의 장소에서 보여지고, 때로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출판물,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도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로커스 플러스는 왜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을까? 프로젝츠 UK를 시작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자체적 전시 공간이 없는 기관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한다.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작가의 작품 제작에 힘을 쏟는 것. 프로젝츠 UK 이전에 있었던 베이스먼트 그룹의 경우 지하실 하나를 빌려 운영했지만, 전시를 하거나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런 규모에 맞는 지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공간을 '채울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따라서, 고정된 전시 공간이 없다면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관한 고민도, 공간을 운영하는데 나갈 수 밖에 없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로커스 플러스가 있는 뉴캐슬 어폰 타인은 문화의 중심지인 런던과 먼 곳에 있다. 비록 중심부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국제적 명성을 지닌 예술 학교가 있는 글래스고나 축제로 유명한 에딘버러와도 맥락이 다르다. 그렇다면, 자체적인 전시 공간은 없지만 뉴캐슬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는 로커스 플러스는 있어 잠재적 관객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디렉터인 존 불리는 로커스 플러스의 지역성이 기관의 활동과 잠재적 관객 설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전시 공간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자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자리한 물리적 위치 또한 기관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로커스 플러스가 뉴캐슬 지역이라는 물리적 범위와 지역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로커스 플러스가 '기관' 차원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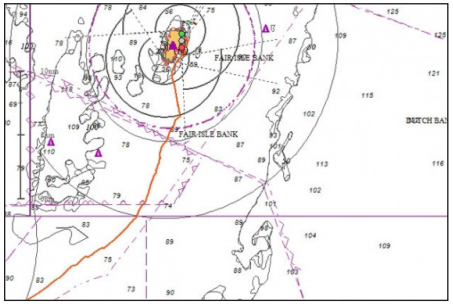
제작: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간소한 규모의 사무실과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로커스 플러스의 초점은 '제작'에 맞춰져 있다. 작가들이 직접 운영했던 베이스먼트 그룹 시절부터 이어진 정신에 따라, 로커스 플러스의 활동은 작가에게 집중한다. 즉, 로커스 플러스는 작품이 완성된 뒤 이뤄지는 활동보다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미술 기관, 교육 기관, 상업 갤러리 등과 협력을 펼치며, 예산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작품을 보여주는 과정, 퍼블릭 프로그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커스 플러스가 '제작'을 수행하는 작업은 작가의 활동 기반, 인지도와 같은 요소들이 아니라 해당 작업이 작가에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새로운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크리스 버든, ‹Ghost Ship›[9] (2005) 프로젝트 진행 장면.

9
http://www.locusplus.org.uk/projects/68~Ghost+Ship

선택이 이루어진다. 인원과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해에 제작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2–3개 내외이며,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되는 작업도 존재한다. 1990년에 예산 상의 문제로 아이디어 제안 단계에만 그쳤던 크리스 버든의 작업이 15년의 시간이 지난 뒤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구현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제작이 완료된 작업들은 로커스 플러스의 손을 떠나 여러 전시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개된다. 로커스 플러스는 작품을 '커미션'하고 '제작'한 주체로 언급되며, 경우에 따라 작가와 함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작품을 함께 관리하기도 한다.

아카이빙

공간 운영보다 '제작'에 초점을 맞추는 로커스 플러스의 운영 모델은 기존의 미술 기관 모델로는 다소 설명하기 어렵지만, 1979년 베이스먼트 그룹이 시작되면서부터 로커스 플러스로 운영 중인 지금까지 일일이 세기 어려울만큼 많은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들이 쌓이며 남겨진 자료들은 뉴캐슬의 미술계뿐 아니라 지역 차원, 영국과 국제 미술계 차원에서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현재 로커스 플러스의 활동을 기록한 아카이브는 지역의 대학인 선더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Sunderland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뿐 아니라 시간을 기반으로 한time-based 예술 관련 아카이브로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졌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 하며 작가의 아이디어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터라 자체적인 컬렉션이나 관리부서를 운영하기 어렵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자신의 자원을 망설이지 않고 공개하고 모두가 살펴볼 수 있게 내어놓은 것이다. 로커스 플러스의 활동은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앞으로 보존될 방대한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속될 것이다. 전시장이 없다는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이트채플 갤러리
Whitechapel Gallery
/ 런던
교육 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교육 기관으로서의 미술관
화이트채플 갤러리

화이트채플 갤러리

www.whitechapelgallery.org

77-82 Whitechapel High Street

London

E1 7QX

운영 시간

화요일–일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스페셜 오프닝 나이트'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

설립 연도

1901년

주요 시설

- 전시장
- 강당 (극장)
- 스터디 스튜디오
- 서점
- 카페, 레스토랑

주요 프로그램

- 전시 및 부대행사
- 상영회
- 강연 및 워크숍
- 마스터클래스
- 필자 레지던스Writer in Residence
- 큐레이팅 더 컨템포러리Curating the Contemporary 석사과정
- NEON 큐레토리얼 익스체인지 앤드 어워드NEON Curatorial Exchange and Award
- 컨템포러리 아트 도큐먼트Documents of Contemporary Art 총서



화이트채플 갤러리 외관. 1901년부터 사용해온 건물(왼쪽)과 도서관(오른쪽)을 합쳐 2009년에 재개관했고, 전시 공간을 78% 늘려 연중 개방을 가능케 했다.

참여 큐레이터: 다니엘 F. 허만 (Daniel F. Herrmann, 화이터채플 갤러리 아이슬러 큐레이터Eisler Curator, 큐레토리얼 스터디스 디렉터 Head of Curatorial Studies)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미술사, 독문학, 언어학을 공부하였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재직한 바 있다. 화이트채플 갤러리와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2년제 석사 과정인 큐레이팅 더 컨템포러리(동시대 미술 큐레이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동시대 미술 전시의 착상과 실현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젊은 세대 큐레이터들과 함께 작업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년) 이후 유럽에서 이루어진 동시대 미술 전시의 변화하는 전시 접근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현재 영국 큐레이터 브라이언 로버트슨Bryan Robertson(1925~2002)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미술관의 탄생[1]

시민을 위한 교육 기관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20세기의 첫 해인 1901년 문을 열었다. 빅토리아 시대가 저물고 유럽 모더니즘이 발현하던 시기, 이민자와 노동자 주거지와 인접한 화이트채플에 미술관이 문을 연 것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상징했다. 만약 화이트채플 갤러리가 빅토리아 시대에 문을 열었다면, 교육적 목적보다는 사회에 대한 자선philanthropy의 의미가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는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이 사민주의적 운동에 자리를 내주던 시기였고,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개관하는 순간부터 시민들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시민들 스스로 지식 생산 수단으로서의 미술, 예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화이트채플 갤러리가 자리한 이스트 런던East London은 전통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고, 특히 미술관이 위치한 구역은 런던의 경제 중심지인 '시티City'와 이민자 거주지역의 가장자리였다. 따라서 예술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민주적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고, 런던이라는 국제적 도시의 맥락과 함께 미술관이 놓인 지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고의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1901년 개관 당시,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모토는 "이스트 런던 사람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예술을The best of the Art of the World for the People of East London" 선보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지역 뿐 아니라 영국 전역, 더 나아가 국외의 작가와 작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것을 의미했다.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많은 작가와 작품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역사[2]를 자랑한다. 1939년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를 소개했고, 1958년에는 잭슨 폴록의 개인전을, 1961년에는 마크 로스코의 개인전을 조직했다. 한편, 오늘날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모토는 "국제적인 최고 수준의 예술을 런던 사람들과 함께 전시하는 것Exhibiting the best international art with the people in London"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토를

1
2014년 10월 29일 "영국 큐레이터 초청 아트토크"에서 다니엘 F. 허먼이 강연한 내용은 아르코 웹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동체로서의 미술관" 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searchCate=03&pageType=List&page=1&idx=223

2
1901년 개관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전시를 다음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www.whitechapelgallery.org/about/history/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searchCate=03&pageType=List&page=1&idx=223

20세기 초 화이트채플 갤러리 외부 전경



실현하는데 있어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술을 확장하는 방법

네 가지 접근법

일반적인 미술 기관과 달리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3]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1) 지역 공동체, 청소년들과의 협력 (2)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지원 (3) 가족 단위 참여 (4) 퍼블릭 프로그램 및 상영. 이같은 방향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미술 기관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향성으로 여겨지지만,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1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며 이같은 방향성을 실험하고 정비해왔다. 이같은 방향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강조되는 지점은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객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역 공동체, 청소년들과의 협력은 전시 참여 작가와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교육 관련 정보 제공 외에도 각급 학교에 작가 레지던스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구현된다.



지역 학생들과 작가 바르트 로데비이크Bart Lodewijks가 방학 동안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White Li(n)es›(2014)의 결과물

새로운 시도들

교육 기관으로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교육 대상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09년 시작해 이어지고 있는 필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큐레이팅 더 컨템포러리 석사 과정은 이같은 시도가 성공을 거두어 꾸준히 운영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적 출발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와 참여 작가, 지역 사회 등과의 협력을 넘어 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것은 지역의 맥락을 잊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외부와 협력하고 새로운 것을 소개해온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활동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큐레이팅 더 컨템포러리 석사 과정의 경우,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더불어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수업과 관련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진다. 실무 교육이 필요한

3
영국에서는 미술관을 비롯한 비영리 기관들이 자선기관Charity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다.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독특하게도 교육 기관Educational Charity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학교와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필요가 만나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강조하는 미술관인 화이트채플 갤러리가 학교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NEON 큐레토리얼 익스체인지 앤드 어워드[4] 역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일부다.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NEON 재단과 함께 조직한 이 프로그램은 아테네와 런던의 큐레이터들이 도시를 오가며 교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런던에서는 화이트채플 갤러리와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연계 과정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교육의 폭을 넓히는 방법에 있어 방법과 틀, 범위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내용은 미술관 프로그램의 일부로 안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MIT 대학 출판부와 함께 발간 중인 컨템포러리 아트 도큐먼트Documents of Contemporary Art 총서[5]

장기적 관점으로, 모두를 위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의미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33권의 서적을 발간한 컨템포러리 아트 도큐먼트 총서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지난 2006년 MIT 대학교 출판부와 함께 현대미술과 시각문화에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총서를 발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총서 발간의 기본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미술 서적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 디자인과 가독성을 고려할 것, 각 주제에 관해 빼어난 내용을 담을 글을 편집해 실을 것. 총서의 각 권들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며, 해당 주제마다 편집자를 정해 내용을 정한다. 참여Participation를 주제로 시작된 이 총서는 아카이브Archive, 디자인과 미술Design and Art 등 동시대의 주요한 주제들을 다루며 전 세계의 미술 교육 기관과 연구자, 작가, 큐레이터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4 http://neon.org.gr/en/neon-learning/neon-curatorial-exchange/

5 http://mitpress.mit.edu/books/series/whitechapel-documents-contemporary-art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한영국문화원

진행

류재수 · 이성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윤조 · 서미선 / 주한영국문화원

Emma Gifford-Mead / 영국문화원 런던 본부

참여 큐레이터

Helen Legg / Spike Island

Kwong Lee / Castlefield Gallery

Graham Domke / Dundee Contemporary Arts

Jon Bewley / Locus+

Daniel F. Herrmann / Whitechapel Gallery

편집

박재용 (워크온워크) / workonwork.org

디자인

안종민 / guuuck.kr

발행일

2015년 5월 11일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Arts Council Korea

BRITISH COUNCIL